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도입방향 및 과제



박 상 우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어촌양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들어가면서

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양륙, 유통, 가공, 관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수산물이 어장에서 우리 식탁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사실상 어항구역은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어항이 수산물 전체 양륙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산지위판장의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의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와는 다르게 수산분야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안전인식 부재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 정상화' 관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수산물 위생관리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수입 수산물 증가로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처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¹⁾(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도입하여 속초항(강원) 및 한림항(제주) 등 연안항 내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위판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항구역은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항의 수역과 육역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위생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항구역 내 위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 실태

일반적으로 수산물 어획 과정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흐름은 ① 어장 → ② 어항 → ③ 산지위판장 → ④ 가공공장 → ⑤ 소비지 도매시장 → ⑥ 소매점 → ⑦ 소비자이다. 수산물류의 흐름상 ④~⑦까지의 과정은 위생관리에 대한 표준화와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①~③의 과정은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획에서 양륙지에 접안까지의 과정, 어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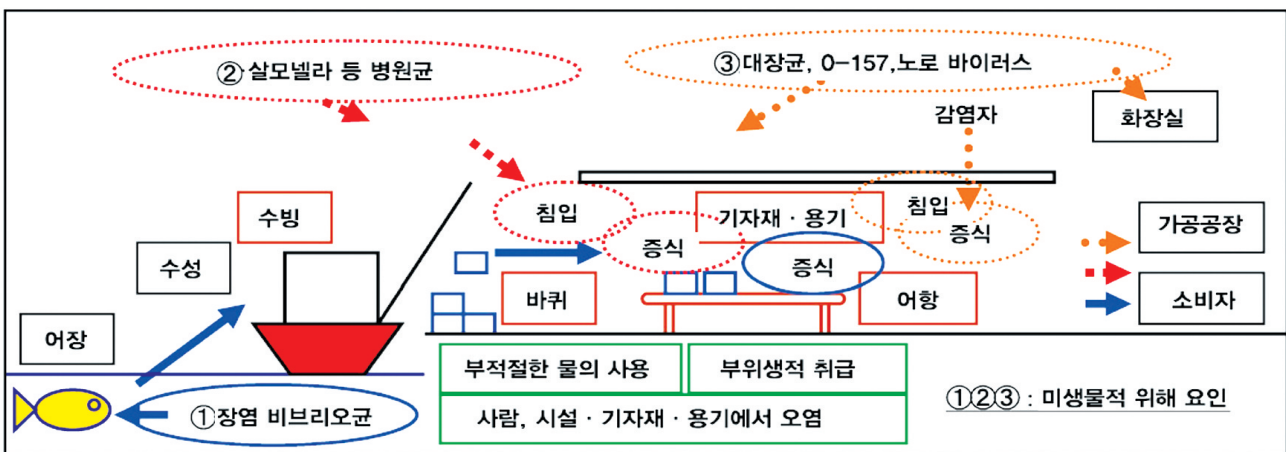
1)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로 지역별·품목별로 물량을 집적, 세척, 선별, 포장 등 전처리과정 및 도매물류 등을 통해 상품을 생산, 소비지에 판매하는 기능 수행

하역하는 과정, 산지위판장 내에서 경매·매매과정 등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질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항수역 내 수질 문제는 어구·어선 청소 및 양륙 시 정박지의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 등으로부터 오염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양륙이후 산지위판장의 위생관리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선어의 경우 산지위판장의 바닥에 선별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닥에 고인물, 진입차량에 의한 오염, 조류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 선별·포장 시 온도변화에 의한 선도문제 등 다양한 위생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표 1.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생관리 문제〉

대구분	구분	위생관리 분야
물환경	정박지 환경	어선 정박지 환경보전 및 폐수 처리
	물 공급	깨끗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세정수
		시설·기구 등의 세정수
얼음 공급	깨끗한 얼음 공급	
작업환경 및 기타	하역·위판장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방풍, 방우, 방진 대책
		조수 등 침입방지 대책
		차량의 진입 대책
	적재·반출	하역·매매환경의 청결 유지
		적재·반출환경의 청결 유지
관계자의 청결 유지	운반차량의 청결 유지	
	사람의 관리	
유보지	화장실 등의 관리	
	쓰레기·폐기물 적재 관리	



〈그림 1. 어항구역 내 수산물 위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어항육역 내 유보지(공원) 등은 폐어구나 인근 생활쓰레기가 불법적으로 적재되면서 세균을 증식하고 옮기는 바퀴벌레, 쥐, 고양이 등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어항의 육역부지 내 폐어구, 쓰레기 적재〉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도입방향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직접적인 처리과정에 한정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항구역 전체에 대한 위생관리의 필요성과 기준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산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위생관리 기준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지만 항내 수역의 수질부터 인근 육역부지의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어항구역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기준 도입은 수산물이 양륙·위판되는 어항구역을 기점으로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확보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위생·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어항 이용·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위생관리형 어항기반시설 지원 확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어항구역 내 수산물 처리, 도입시설, 수질, 쓰레기 및 폐기물 등 어항구역 내 위생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위생·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어항의 열악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륙지로서 중심어항은 단계적으로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위생관리형 어항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항관리자, 수협, 어업인 등 어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항 위생관리지침 교육이수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 어항이용자가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어항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어항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어항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어항정비사업의 예산 확대 및 단계별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과 규정 마련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표 2.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도입방향〉

위생관리 항목	어항구역 내 위생관리기준 도입방향
정박지 환경의 보전·폐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벽이나 위판장 등에서 배수와 다음 처리 시설의 정비 - 양륙 부두의 배출구 설치의 해결 - 필요에 따른 해수 교환형 시설로의 개량, 진흙 파설 실시
깨끗한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한 세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바닷물 또는 음용적인 물의 공급 시설 정비 ※ 해수 : PH, SS, 대장균군, COD, T-N이 수산 용수기준을 충족 ※ 음용수 :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 관계 기준을 충족
시설·기구 등의 세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음용 적합 물 공급 시설의 정비 - 정기적인 수질 조사, 살균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급수전의 적정 배치 ※ 해수 : PH, SS, 대장균 군, COD, TN이 수산 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이외에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는 것
깨끗한 얼음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음용 적합 물 공급 시설의 정비 - 정기적인 수질 조사, 살균 시설의 정기 점검 실시 - 아이스시설 등으로부터 얼음을 해산물에 공급할 때까지 철저한 청결유지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어패류와 분리하는 시설의 정비(필요에 따라) - 폐기물의 노출 방지, 정기적 반출, 정기적 용기 등 세척실시
방풍 방수 방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풍 방수 방진 시설(지붕 등)의 정비(필요한 경우)
조류 등 침입 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치마, 위판장 등 바닥의 정기적 청소(배설물이나 깃털, 먹이가 되는 이물질 등의 제거) 실시 - 조류 침입 방지 시설(지붕, 지붕부근 피아노선 등)의 정비(필요한 경우)
차량 진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작업 동선 관리 - 하역, 위판장에 차량 진입 방지의 철저 (차량 진입이 어업 형태상 부득이한 경우_① 타이어 세척, ② 차체 세척 시설의 설치, ③ 어패류의 배기가스 회피를 조건)
하역·위판장 환경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환기, 조명 확보 - 교차 없는 작업 동선 확보 - 청정 해수 또는 마시기 적당한 물로 케이스·바닥 등의 청소 실시 - 케이스·바닥 등의 청소 후 배수의 적정 관리 - 부두에서 낚시 장비 등의 세척·보관 금지 - 적정 수량 용기의 사용 - 창고의 노후화 대책(필요한 경우) - 장화 소독탱크 등의 설치 - 해산물을 바닥에 직접 두는 것 금지
적재·반출 환경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해수 또는 마시기 적합한 물을 이용한 케이스, 기기류 등 청소 실시 - 하역, 위판장 및 적재 반출 부분의 분리 - 어패류의 차량 등에 의한 배기가스의 영향 방지 - 적재 반출시 노출 방지
운반 차량의 청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판장의 운송 차량의 청소 실시 - 타이어 세척 실시 - 차체의 정기적인 청소 실시 - 적재 반출에 관련된 도로, 케이스 포장, 빗물 배수 대책의 실시
사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청결 - 깨끗한 옷차림 - 흡연실의 구분 등
화장실 등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위생적 배치 - 바닥에 식중독 균의 증식 방지